

LNK(LoveNorthKorea) 주간기도(5월1일)

1. 김일성 우상화 수식어 '태양' 김정은에 사용



북한이 최근 김정은을 '주체 조선의 태양'이라고 치켜세우는 한편, 김일성의 생일을 의미하는 '태양절'과 김일성 생가인 만경대를 가리키는 '태양의 성지'라는 말을 삭제하고 있어 주목된다. 김일성 우상화에 사용되던 '태양'이라는 표현을 김정은에게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선대의 신격화 강도는 줄이고, 우상화의 초점을 김정은에게 맞추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의 우상화 최악이 그쳐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나라가 되기를 기도한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며 위엄으로 옷 입으시되 여호와께서 능력으로 옷 입으시고 띠를 두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세계가 견고히 세워지고 결코 흔들리지 않으니 당신의 보좌는 옛적부터 세워지고 당신은 영원부터 계셨습니다”

시편 93편 1~2절(남북한병행성경 북한어) 말씀처럼 위엄과 능력으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김씨 일가를 신격화하고 세뇌 교육으로 북한 주민을 우상숭배하게 만드는 죄악을 멈추게 하옵소서. 북녘 땅에 복음이 자유로이 선포되어 예수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로부터 견고히 선 주의 보좌를 북한에 세우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 북한, 350키로 사정거리의 초대형 방사포 발사



4월 23일자 연합뉴스에 의하면 “북한이 김정은의 지도하에 초대형 방사포를 동원한 핵반격 가상 종합 전술훈련을 실시했다. 한미연합훈련 등으로 ‘우리를 압살하려는 적대 세력들의 끊임없는 군사적 도발’이 훈련의 배경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은 이날 이동식 발사대 4대에서 각기 1발씩 총 4발의 초대형 방사포를 쏘았는데 사정거리 352km의 섬 목표를 명중 타격했다고 설명했다. 평양에서 350km 안팎이면 육.해.공군 본부가 있는 계룡대와 한미 KFT 훈련이 진행되고 있는 군산기지 등에 닿을 수 있다”는 내용이다.

“드합느헤스에서는 대낮에 어두워질 것이니 그때에 내가 거기서 애굽의 통치권을 파할 것인즉 이로써 애굽의 교만은 끝이 나고 그 성읍은 구름으로 덮히며 그 딸 마을들은 사로잡혀 가리라. 이처럼 내가 애굽에 심판을 집행할 것이니 그때에 그들은 내가 여호와임을 알리라.

에스겔 30:18-19 (남북한병행성경 북한어) 말씀처럼 세상 만물의 주인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자신이 신이 되어 핵과 포를 무기 삼아 이 나라를 위협하고 있는 교만의 극치를 이루고 있는 김정은을 비롯한 북한의 위정자들의 교만을 꺾어주시고 더 이상 핵과 포를 무기삼아 이 나라를 위협할 수 없도록 지켜 주옵소서. 그 땅을 심판하실 때에 심판중이라도 은혜를 베푸사 북한 땅에 있는 주 믿는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김정은의 속임에 속아 살고 있는 자들에게 주님을 전할 기회를 확대해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배달의 기회를 더욱 더 확대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 북한, 남북 잇는 도로 가로등 철거



북한은 지난 1월, 남북 교류의 상징이던 경의선과 동해선 육로에 지뢰를 매설했다. 이번에는 경의선·동해선 도로의 가로등 수십 개를 철거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의선은 남측에서 개성공단으로, 동해선은 금강산으로 이어지는 도로이다. 이미 “대한민국은 제1의 적대국”이라고 선언한 만큼, 더는 관계에 미련이 없다는 뜻으로 읽힌다. 상처로 얼룩진 남북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 가운데 복음통일로 나아가도록 기도한다.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누가 우리에게 선한 것을 보일까 하니 여호와여 당신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소서...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여호와여 나를 평안히 눕게 하는 이는 오직 당신이십니다”

시편 4편 6, 8절(남북한병행성경 북한어) 말씀으로 80년 가까이 나뉘어 여전히 서로를 적대시하며 도발과 위협을 일삼는 남과 북을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남북 관계 가운데 당신의 얼굴빛을 비추시고, 평안을 주사 분단의 아픔을 딛고 복음통일의 새 역사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 한국전쟁에서 종교인 1700명 북한군 등에 희생



진실화해위는 6·25 전쟁을 전후로 북한 인민군과 빨치산, 지방 좌익 세력에 의해 종교인 1700여 명이 학살됐다고 밝혔다. 1952년 공보처 통계국이 작성한 ‘6·25사변 피살자 명부’와 교회·교단 기록을 토대로 희생된 종교인 1700여 명 중 전북 군산·김제·정읍 등 8개 지역 24개 교회에서 1950년 7~11월에 104명이 살해된 사실을 현장 조사 등을 통해 확인했다. 정읍에서는 빨치산이 교회와 교인의 집을 불태우고 불길에서 빠져나오는 사람을 찌르는 수법으로 아이·노인 20여 명을 살해한 것으로 나타났다. 순교의 피를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남북이 서로를 용서하고 진정한 복음통일을 이루게 하시기를 기도한다.

“나에게 닥쳤던 일들을 보았거니와 내가 그 온갖 박해를 견뎌냈고 주께서 나를 그 모든 것에서 건져내셨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자들과 험잡군들은 서로 속이고 속으면서 더 악해질 것이나 너는 이미 배우고 확신한 것에 계속 거하라”

디모데후서 3장 11~14절(남북한병행성경 북한어) 말씀으로 한국전쟁과 그후로도 박해받고 순교의 피를 흘리는 남북의 교회를 올려드립니다. 죽음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는 성도들의 믿음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께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북한의 교회 가운데 이루어 주옵소서. 혹독하게 핍박받는 북한 지체들을 위해 남한 교회로 기도하게 하시고, 상처와 아픔으로 얼룩진 남북이 하나님 안에서 용서와 치유를 경험하고 진정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 함경북도서 아편 중독된 北 주민 사망 사례 연이어 발생



북한에서 아편은 오래전부터 만병통치약으로 여겨지고 있다. 설사 등 비교적 흔한 질병에 걸려도 아편을 복용하고 심지어 아편 주사를 6개월에 한 번씩 맞으면 뇌경색이나 뇌출혈 방지에도 효과가 있다는 인식이 있어 노년층에서 정기적으로 아편을

주사하는 경우도 흔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렇게 의약품 대신 아편을 사용하다 중독되거나 숨을 거두는 사건이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의약품 대신으로 아편을 사용하다가 그 과정에 양을 조절하지 못하거나 과도하게 자주 복용하면서 중독자들이 생겨나기도 하는데, 특히 농촌 지역에서는 일부 개인 집에서 단속을 피해 몰래 아편을 심고 재배하면서 중독자가 점점 늘어났다는 게 소식통의 설명이다.

한번 아편 중독에 걸린 사람들은 아편을 끊지 못하고 집안의 재산을 다 팔아서라도 아편을 사게 되고 이런 실정으로 중독에 걸린 사람들은 길가에 나앉거나 이혼당해 혼자 사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한다. 이런 아편 중독자들이 최근의 경제난으로 식량이 떨어져 배를 굶는 데다 돈이 없어 아편을 구하지 못하면서 떨림, 두통, 불안 등의 증상에 시달리다 결국 숨을 거두는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때에 예수께서 자신을 믿은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 것이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요 8:31-32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북한 땅에 있는 진리를 알지 못하는 못 백성들, 특히 생활고로 말미암아 아편중독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북한 땅의 백성들을 의탁하오니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오직 진리이신 주님만이 이런 상황과 여건을 고치실 수 있는 분이시기에 그 땅에 복음이 편만하게 전해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옵소서.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사, 힘있게 복음 전하게 하시고 주께로 돌아오는 영혼들이 많아지게 하옵소서.

중독자들이 늘어나고 사람들이 이로 인해 죽어가는 심각한 상황임에도 대책은 없고 제대로 된 단속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북한당국의 기본적인 인권까지도 무시하는 악행도 그쳐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6. 북 엘리트, 24시간 도청 당해...



“북한 고위 간부들은 24시간 도청을 당한다. 집에서 불평불만을 쏟아내려 하면 장모님이 손가락으로 입을 가리며 주의를 줬다. 39호 실장인 장인어른과 속 깊은 대화를 나누기 위해 새벽 산보를 나가곤 했다. 고위 관리들은 조금만 잘못해도 목이 달아나거나 죽임을 당하고 정치범수용소로 보내질 수 있어서 한 쪽 발은 지옥에 넘겨 놓고 사는 것이 북한의 엘리트다. 이들이 김정은과 운명공동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인식이다.” 류현우 전 쿠웨이트 주재 북한 대사대리가 자유아시아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이다.

“나 여호와가 공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너의 손을 붙잡고 너를 지키며 너를 그 백성을 위한 계약과 이방인을 위한 빛이 되게 할 것이니, 네가 눈먼 자들로 눈을 뜨게 하고 갇힌 자들을 감옥에서 이끌어 내며 흑암에 앉아 있는 자들을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이것이 내 이름이다. 내가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고 나의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않으리라.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사야 42:6-8 (남북병행성경 북한어)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북한 땅에 스스로 우상이 되어 왕인것처럼 전국을 감옥으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은바 된 사람들을 통제하되 고위 간부들까지도 온전히 조정하고 있는 김정은의 교만을 고발합니다. 말씀처럼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북한 땅에 있는 소경의 눈을 밝히시며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 내며 흑암에 처한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자에게, 하나님의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만물을 지으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진정한 왕은 하나님 한 분 밖에 없음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